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 해설		
목표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이해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바른 이해와 새로운 탐방문화 제시 및 정착		
해설주제	사찰을 배경으로 한 전통건축양식 체험 및 국립공원의 이해		
해설재료	국립공원, 사찰의 건물들, 사찰식생	소요시간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단계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1. 만남과 인사	· 만남과 인사 및 간략한 일정 소개		
해설주제	2. 주의사항과 일주문	· 주의사항과 일주문 소개		
	3. 사찰 주변의 식생	· 전나무, 주목, 느티나무, 매화나무 맥문동		
	4. 대원사	· 대원사의 유래와 안거		
	5. 방장산의 유래	· 지리산의 다른 이름 방장산 유래		
	6. 사천왕문	·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주제심화	7. 범종각	· 삼라만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사물		
	8. 대웅전	· 사찰의 중심이 되는 범당들의 이름 · 기둥을 장식한 주련		
	9. 사찰의 벽화	·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심우도		
	10. 사찰내 식물	· 꽃무릇(석산)과 배롱나무		
	11. 불탑	· 대원사다층석탑(보물1112호)		
	12. 원통보전	·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		
	13. 산왕각(산신각)	· 지리산의 산(山)신이 모여진 산왕각		
	14. 명부전	· 지장보살과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		
	15. 국립공원이란?	· 국립공원탐방프로그램소개 · 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		
	16. 마무리	· 질문과 답변, 마지막 인사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 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과 인사 · 프로그램 일정 소개
만남	<p>안녕하십니까? "지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즐거운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을 책임질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소개와 사찰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립공원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우리 문화를 바르게 알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우리나라 불교가 가정 번성한 신라시대에 세워진 소박하고 아담한 대원사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p>
2. 주의사항과 일주문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주의사항 · 사찰의 첫 번째 문 일주문
국립공원의 주의사항	<p>그럼 대원사로 들어가기 전에 국립공원에 오시면 지켜야 될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자연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맑은 하늘, 그 아래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숲, 계곡의 물소리, 새들의 지저귀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 자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의 손님인 여러분도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찰 경내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시는 다른 탐방객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시끄럽게 떠들거나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됩니다. 자! 그럼, 즐겁고 재미있는 대원사의 역사 속으로 출발합시다.</p>
일주문	<p>사찰입구에서 만나는 첫 번째 문으로 속세와 경계가 되는 문입니다. 일주문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일반적인 가옥 형태와는 달리 일직선상의 두 기둥 위에 지붕을 얹는 독특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에는 어떠한 고정 장치가 없이 주춧돌 위에 그랭이질을 하고 이토록 무거운 지붕을 세워서 이토록 오래된 세월동안 유지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독특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 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p>사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독특한 양식으로 세운 것은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성한 사찰에 들어서기 전에 속세의 번뇌를 불법의 청량수로 말끔히 씻고 일심으로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p> <p>또한 이 같은 일주문에는 일반적으로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冥存知解)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세간의 알음알이로 해석하려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대에 중창 이 후 대원사의 일주문이 없었으나 98년도에 정천수 목수에 의해 목조와가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을 통과하면 사실상 사찰에 들어서는 것이고 속세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다함께 이문을 통과해 볼까요?</p>
--	---

3. 주변색생	· 일주문을 지나 사찰로 들어가기 전 주변 식생설명
---------	------------------------------

<p>전나무</p> 	<p>■ 전나무</p> <p>앞에 보이는 이 높은 나무는 소나무과의 전나무로서 열매는 10월에 익고 길이 10~12cm로 솔방울 모양이며 위쪽으로 향해 달립니다. 꽃은 3월에 피며 사는 곳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 하고 있으며, 전나무는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대산이나 설악산,백두산이나 금강산, 지리산처럼 높은 산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라는 아름드리 전나무 숲이 많습니다. 줄기는 곧게 뻗고 가지는 우산을 펼친 듯 뻗어나가고, 오래 자라면 가지가 거의 없이 미끈해집니다. 이러한 전나무들이 유명한 곳이 오대산 국립공원의 월정사 어귀에 잘 자란 전나무 숲입니다. 사찰 주변에 이러한 전나무 등을 많이 심는 이유는 전나무는 나무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흰빛을 띠어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로 많이 사용 하여 사찰이 확장을 하거나 화재로 인한 복구를 할 때 이러한 전나무를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한 잎이 붙은 가지, 송진 등을 약재로서 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찰에서 많이 필요했던 나무였습니다.</p> <p>「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 보리 / 임경빈 p242~243</p>
---	---

3/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3. 주변색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주문을 지나 사찰로 들어가기 전 주변 식생설명
<p>주목</p> 	<p>■ 주 목</p> <p>사천왕문 앞쪽 양쪽으로 보이는 이 나무는 주목이라는 나무로서 주목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도, 울릉도, 태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주로 해발고도 700m를 넘는 산에서 잘 자랍니다. 줄기의 껍질과 속이 모두 붉어서 ‘주목’이라고 부르며, 아주 천천히 자라서 크게 자라려면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 년인 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p> <p>잎은 줄기에서 나사꼴로 달리며, 늘 푸르지만 2~3년 쯤 자라면 지고, 열매는 9~10월에 붉게 익는데, 역매의 과육이 씨앗의 한쪽만 남기고 둘러싸는데, 이러한 생김새는 주목류를 알아보는 중요한 특징이다. 열매의 씨앗에는 독성이 있어서 섭취를 하면 안됩니다.</p> <p>주목은 줄기와 열매 모두가 붉어서 귀신, 악귀를 쫓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으며, 목재는 가구, 조각품 등에 사용 하지만 목재가 귀하여 얻기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주목으로 화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세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인 ‘로빈 후드’도 그러한 화살을 썼다고 합니다.</p> <p>「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백과사전」 현암사 / 서민환.이유미 p30</p>
<p>느티나무</p> 	<p>■ 느티나무</p> <p>앞에 수(水)각 위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나무는 느티나무라고 하는 느릅나무 과의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정자나무로 무척 좋은 나무여서 마을의 보호수로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아름다우며 오래 살고, 줄기가 곧고 사방으로 고루 뻗으며, 여름이면 그늘이 참 좋다. 본래 느티나무는 마을 가까이 산기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물이 잘 빠지는 기름진 땅을 좋아 합니다. 요즘은 흔히 가로수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재는 박달나무 다음으로 단단해서 크고 좋은 목재로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의 느티나무는 대게 수피가 회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느티나무는 오래 될수록 수피가 거칠지고 벗겨져 늙은 티를 낸다고 하여, “늙은 티내는 나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3. 주변색생	· 일주문을 지나 사찰로 들어가기 전 주변 식생설명
---------	------------------------------

<p>매실나무 (매화나무)</p> 	<p>■매실나무(매화나무)</p> <p>자 이번에는 사천왕문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보이는 나무가 바로 매실나무입니다. 흔히 매화나무라고 하지요. 그 뒤편에 보이는 전각이 범종각과 설화당인데, 이 설화당이라는 곳은 절에 손님이 오시면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봄철 매화꽃이 필 때 설화당에서 보는 풍경이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원사의 매화꽃은 산청에서 유명한 매화 중 하나인 흰꽃이 피는 “백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령이 약 250여년 되었으며, 이른 봄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매실이 열리고 5월 말에서 6월 초면 매실을 딸 수 있습니다. 매실은 장아찌를 담궈 먹기도 하며, 여름에는 매실차로 소화를 돕고 배탈이 나지 않게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p> <p>옛날 속담에 “벗나무 끊는 바보, 매화나무 안 끊는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실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모양을 다듬어 줄수록 좋아지고 벗나무는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를 끊는 자리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실나무는 화분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웁니다.</p> <p>「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 보리 / 임경빈 p132</p>
--	--

<p>맥문동</p> 	<p>■ 맥문동</p> <p>백합과 식물로 5~8월에 꽃이 피며 10~11월에는 열매가 익는 우리나라 중부이남 산지의 나무 그늘에 나는 상록 다년초로 일부러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 뿌리줄기 밑에는 회고 굵은 뿌리가 나고 길게 뻗으면서 수염뿌리를 내리는데, 수염뿌리 끝은 점점 굵어져 땅콩처럼 생긴 흰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덩이뿌리라고 합니다. 꽃은 총상꽃차례로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에 길이 8~12cm인 꽃차례가 생기는데, 색깔은 자주색이며 수술이 6개, 암술은 1개가 있습니다. 열매는 얇은 껍질이 일찍 벗겨지면서 검은색 씨앗이 드러납니다.</p> <p>p55 「우리풀 백과사전」 현암사/이유미</p>
--	---

5/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대원사	· 대원사의 유래와 현황 설명

대원사의
유래



지리산의 천왕봉 동쪽에 위치한 **조계종 해인사의 12교구 말사의** 고찰로 신라 제24대 왕인 진흥왕 8년(서기 548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하여 평원사라 하였는데, 그 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절을 조선 숙종11년(서기 1685년)에 **중창**하여 대원암 이라 부르다 고종 27년(서기 1890년)에 **재중창하여 대원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들이 이곳 대원사에서 식량을 약탈 하고 은거지로 사용 한다고 판단하여** 진압군에 의해 전소되고 자장율사가 세운 진신사리탑(보물 제1112호)만을 남긴 채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지리산의 사찰들은 실상사와 화엄사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지리산 대원사 역시 선생님들이 건너 오신 대원교다리 넘어 있는 맹세이골이라는 골짜기에서 이곳 대원사로 포격을 해 모두 전소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 후 7년 간 대원사 다층석탑을 제외하고 폐허로서 세월이 흐르다. 어느 날 일제 강점기 당시 은행원으로 일 하였던 한 사람에 의해 대원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중창이 되는데요, 현재의 모습은 **비구니 범일스님이 1955년부터 50여 년간 중창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이때부터 비구니스님들만이 참선 정진을 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비구니스님들의 참선 도량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사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대에 알고 있는 큰 스님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바로 큰 성철 스님께서도 이 곳 대원사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안쪽에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에서는 일년에 두 번 전국 여러 사찰에서 온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 정진을 하는데, 음력으로 하안거(夏安居) 4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동안거(冬安居) 10월 15일부터 1월 15일 까지 공부를 하며 평소에는 20여분만이 계시지만 그 기간에는 60여명이 귀거하게 됩니다.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대원사	· 대원사의 유래와 현황 설명

대원사의 유래



■ 안거의 유래 -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음력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와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일년에 두차례 각각 동안거와 하안거라고 해서 스님들이 산문출입을 자제하고 수행에만 정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와같은 안거제도는 본래 석가모니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즉 출가수행자들은 어느 한곳에 머무는 일 없이 유행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인도에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되면 땅속의 작은 생물들이 기어 나오기 때문에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것들을 밟아죽일 염려가 있고 또 교통도 불편한데다가 각종 나쁜 질병들이 나도는 경우도 있어 유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기의 3개월간은 유행을 중지하도록 설하신 것이 안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부와 수행에만 전념하며, 특히 안거의 마지막 날에는 자자(自恣)라는 독특한 참회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승가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거의 풍습은 그 후 부유한 재가신자나 왕족들이 건물이나 토지 등을 회사함으로써 스님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사원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각지로 돌아다니던 스님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계율이나 승단의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안거제도를 통해 화합과 합의를 터전으로 하는 승가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승가 고유의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여름에 하는 하안거만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동안거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조건에 따라 여름에 하안거(4월15일~7월15일), 겨울에 동안거(10월15일~1월15일)를 안거기간으로 삼게 되었는데, 이 같은 안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라 하고 끝내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7/25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4. 대원사	대원사의 유래와 현황 설명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대원사의 유래</p>  </div> <div style="flex: 2;"> <p>■ 비구니 승단의 탄생</p> <p>붓다가 깨달은 지 5년이 되던 해 부왕이 죽자, 붓다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는 남자들이 비구가 되기 위해 출가해서 홀로된 사카족 여성 500명과 함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서 출가를 하려 했으나 붓다가 세 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도 출가하면 아란한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비구를 대하는 여덟 가지 규정을 전제로 한 비구니 승단이 탄생되었습니다.</p> <p style="color: red;">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인도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남녀를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여성이 출가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인정했던 부처님 시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p> </div> </div>	
5. 방장산의 유래	· 방장산(方丈山) 대원사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지리산의 다른 이름</p> <p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2px;">寺源大山丈方</p> </div> <div style="flex: 2;"> <p>사천왕문 위쪽의 현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지리산이 아닌 방장산 대원사 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p> <p>지리산의 다른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리산이란 말은 지혜로운 이인(異人) 많다고 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한글로 표기할 때는 지리산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는 지혜로울 지(智)자와 다름이(異)자를 사용해 智異山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이 여기까지 흘러 왔다고 하여 두류산(頭流山), 그리고 먼 옛날 중국에서 동방에는 신선이 살고 있는 3개의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삼신산(三神山)이라고 불렀는데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판에 쓰인 방장산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p> <p>그 외에도 이성계의 조선건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다 하여 불복산, 반역산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p> </div> </div>	

8/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5. 방장산의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장산(方丈山) 대원사
지리산의 다른 이름 寺源大山丈夫	<p>■ 지이산(智異山)이라 쓰고 지리산이라 읽는다</p> <p>지리산(智異山)은 원래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師利菩薩)의 지(智)자와 리(利)자를 따와 지리산(智利山)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수보살이 중생을 제도(濟度)하기 위하여 갖가지 다른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智慧)로운 이인(異人)이 많이 계시는 산(山)'이란 뜻으로 지리산(智異山)으로 적는다고 합니다.</p>
6. 사천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p>■ 사천왕문과 그분들을 모시는 이유</p> <p>사천왕이라 함은 수미산 중턱의 동·서·남·북에 유전타 산의 돌출된 봉우리에 사천왕들이 살고 있다. 이곳을 사왕천이라고 하며, 이곳부터 실질적인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쪽의 동방지국천왕, 서쪽의 서방광목천왕, 남쪽의 남장증장천왕, 북쪽의 북방다문천왕으로 고대 인도종교에서 숭앙하였던 잡신(귀신)들의 왕이었으나 석가모니에게 귀의하여 부처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천왕들은 수미산중턱 지점의 동서남북에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불법을 수행하고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천왕은 왕이기 때문에 무관 형태를 띄지 않지만 수문장의 역할로는 문관형태 보다는 무관 형태가 적합하여 이렇게 고착되었다고 봅니다.</p> <p>사찰마다 사천왕을 모시는 이유로는 절을 수호하고, 불자로 하여금 도량안은 모든 악귀가 물러난 청정한 곳이라는 마을을 가지게 하고, 수행과정의 상징적 의미로 일주문을 거쳐서 수미산의 중턱에 이르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험상궂은 사천왕의 위압적인 인상을 보고 잡념을 씻어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p> <p>사천왕문은 의당 사찰의 네 방위에 별려 있어야 하나 중국의 일향적 건축구조에 의해 남향으로 단일화 되어 변형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p> <p>사천왕은 들고 있는 지물, 즉 손에 든 물건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데, 동 : 비파, 남 : 보검, 서 : 용과 여의주, 북 : 보탑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대원사에는 이러한 사천왕문이 예전에는 탕화로서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이 많이 되어 사찰에서 따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범종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라만상의 영혼을 위로 하는 물건들
<p>범종각</p>  <p>* 참고 범고</p> 	<p>삼라만상의 영혼을 달래주는 범종, 범고, 운판, 목어는 의식이나 법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 4가지 물건을 사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범종루나 범종각에 같이 보관합니다. 대원사에는 범종만 있습니다.</p> <p>보통 범종각에는 범고, 목어, 운판, 범종의 사물이 모셔져 있으며 아침, 저녁예불 시간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불을 드릴 때 사물을 울리는 걸까요??</p> <p><예불문>에 보면 “온누리에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 이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범고, 운판, 목어, 범종을 울리는 것입니다.</p> <p>그런데 왜 아침예불에는 범종을 28번 타종하면서 저녁예불에는 33번을 타종하는지 아십니까??</p> <p>28번 타종하는 것은 28천(天)으로 이루어진 모든 하늘세계에 두루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으며, 33번 타종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주관한다는 제석천왕이 머무는 도리천의 선견궁을 비롯한 33궁에 종소리가 두루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p> <p>범종은 불전사물중에서도 소리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최고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중생들 또한 구제하고자 범종의 아래에는 지하세계로 통하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p> <p>대원사의 범종은 하절기 새벽 3시쯤에 울리며, 이후 사찰의 문이 개방이 되고 스님의 하루 일과가 시작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절기는 4시에 울리며, 동절기 6시 타종, 하절기 7시 타종 후 사찰의 문을 닫습니다.</p> <p>■ 범고 - 가족이나 짐승을 제도</p> <p>범고는 나무로 몸통을 만들고 소의 가족을 대어 만드는데 땅 위에 사는 중생들이 오직 참다운 마음자리를 깨달아 부처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음 심(心) 자를 그리며 두드린다고 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7. 범종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라만상의 영혼을 위로 하는 물건들
운판 	<p>■ 운판 - 공중을 떠다니는 영혼을 제도</p> <p>운판은 청동이나 철로 구름모양을 본떠 만들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사는 중생들의 제도를 기원하며 두드린다고 합니다. 또 운판은 구름 즉, 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재를 막기 위해 주방 등에도 비치 한다고 합니다.</p>
목어 	<p>■ 목어 - 물속에 사는 영혼을 제도</p> <p>목어는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배 부분을 파내고 그 속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고기 형태였으나 점차 용 머리에 여의주를 문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어변성룡의 관점에서 물에 사는 물고기 또한 수행을 통하여 용으로 변한다. 는 의미가 있습니다.</p> <p>길게 두 번 두드리면 공양시간, 한번 두드리면 모이라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독경이나 의식에 사용합니다. 목탁은 목어가 변형된 것입니다.</p>
8.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찰의 중심이 되는 법당
대원사 대웅전 	<p>사찰에 중심이 되는 법당을 보통 대웅전이라고 하며 “대웅”이란 세상의 큰 영웅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덕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찰에 대웅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찰에 중심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주불 또는 본존불이라고 하는데 이 주불이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예를 들어,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면 대웅전이라 하고 아미타불을 모시면 아미타전, 극락전 또는 무량수전이라 하며 비로자나불을 모신 곳을 비로전 또는 대적광전(강원도 월정사의 경우는 적광전이나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다. 원래는 대웅전이었으나 1950년 적광전으로 현판을 고쳐 단 것)이라고 부릅니다.</p> <p>그리고 이 세분 부처님을 삼신불이라 부르지만, 많은 사찰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찰에 가면 꼭 대웅전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p> <p>대웅보전이란 쓴 현판을 보신 적이 있다면 대웅전에 삼존불이 있을 경우 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p>
11/25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8. 대웅전	· 사찰의 중심이되는 법당
--------	----------------

<p>대원사 대웅전</p> 	<p>대원사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웅전입니다.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의 중심인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이 앉아 자비와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불교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이, 오른쪽에는 대행원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양 옆에 있는 분들이 부처님일 경우에는 협시불, 보살일 경우에는 협시보살이라고 합니다.</p> <p>대웅전은 수미산의 꼭대기에 부처님이 살고 있는 선경궁을 상징하며, 대웅전의 중심에 부처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숭유억불정책으로 사원경제가 어렵게 되자, 사찰수입증대를 위해 대웅전이 개방되고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불단이 점차 뒤로 밀려나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p> <p>대원사의 불상은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행자목불이며 예전 대원사가 어렵게 중창하던 시절 대웅전 뒤편으로 큰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번개를 맞아 쓰러진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3개의 불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p> <p>예전에 대원사는 법일스님의 개인 사비로서 중창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웅전에 단집이 없으며, 또한 독성단, 칠성단이 대웅전에 다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이 다른 사찰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p>
---	---

<p>대웅전 주련</p> 	<p>기둥을 보시면 글이 쓰여 있는데 이를 주련이라고 합니다. 주련이란 말은 기둥을 장식하기 위해 쓴 글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은 계송이라하여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나 시를 말합니다. 야부선사 계송을 홍경스님(고성 건봉사 출가. 통도사 주지 역임. 봉화 청량사 입적)이 쓰신 행서로써 한자음은 마하대법왕 무단역무장 본래비조백 수처현청황이며 내용은 크고 큰 법왕이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네, 본래 검고 흰 것 아니지만, 곳을 따라 청황으로 나타나네입니다.</p> <p>주련의 아래, 위로 보면 연 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연꽃 등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적으로 장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꽃이 불교의 어떠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일까요?</p>
---	---

12/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8.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찰의 중심이되는 법당 <p>■ 불교에서 연꽃의 의미</p> <p>연꽃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부조리와 환경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꽃피우는 사람을 상징한다. · 연꽃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무르지 않는다. 물이 연잎에 닿으면 그대로 굴러 떨어질 뿐이다. 물방울이 지나간 자리에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와 같아서 악과 거리가 먼 사람, 악이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이 않는 것을 상징한다. · 마지막으로 연꽃은 피면 필(必)히 열매를 맺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꽃피운 만큼의 선행은 꽃 그만큼의 결과를 맺는다. 이러한 꽃과 열매의 관계는 인과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인과의 도리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p>또한,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에도 연꽃의 비유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가에서 “염화시중의 미소요, 이심전심의 묘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설법은 하시지 않고 결의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였는데, 제자 중에 가섭존자만 홀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마음을 속속들이 전하는 도리로서 이심전심을 뜻 합니다.</p> <p>그리고 연꽃의 봉오리는 마치 우리 불교 신도가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경건히 서 있는 불자의 모습을 마치 한송이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서 연꽃은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p>

대웅전 주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벽화	<p>·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심우도</p> <p>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사찰의 많은 건물들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단순히 벽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벽의 위치와 건물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내용의 그림을 그린 것이며, 불교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은 물론 이를 통해 중생들을 교화하고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벽화의 내용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교리에 관한 이야기, 고승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벽화는 건물의 수명과 같이 없어지기도 하고, 비바람에 퇴색되어 지금에 있는 벽화들은 조선후기에 고쳐 그렸거나, 새로 그린 그림이 대부분입니다.</p> <p>대원사 대웅전 둘레로 그려진 그림은 심우도로 찾을 심(壽)자 소우(牛)자로 소를 찾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이는 본성(마음)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동자승이 스님이 소를 찾아가는 것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소는 인간의 본성에 스님이나 동자는 불도의 수행자에 비유 됩니다.</p> <p>■ 심우(尋牛)</p> <p>동자승이 소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잊고 찾아 헤매는 것은 불도 수행의 입문을 일컫는 것입니다.</p> <p>■ 견적(見跡)</p> <p>동자승이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잡니다. 수행자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본성의 발자취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p> <p>■ 견우(見牛)</p> <p>동자승이 소의 뒷모습이나 소의 꼬리를 발견합니다. 수행자가 사물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여 견성(見性)에 가까웠음을 뜻합니다.</p> <p>■ 득우(得牛)</p> <p>동자승이 드디어 소의 꼬리를 잡아 막 고삐를 건 모습입니다.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佛性)을 꿰뚫어보는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p>
14/25	신청인 : (서명)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9. 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는 심우도 <p>■ 목우(牧友) 동자승이 소에 코뚜레를 뚫어 길들이며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얻은 본성을 고행과 수행으로 길들이며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소도 점점 흰색으로 변화되어 갑니다.</p> <p>■ 기우귀가(騎牛歸家) 흰 소에 올라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무애의 단계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때입니다.</p> <p>■ 망우재인(忘牛在人) 소는 없고 동자승만 앉아 있습니다. 소는 단지 방편일 뿐 고향에 돌아온 후에는 모두 잊어야 합니다.</p> <p>■ 인우구망(人牛俱忘) 소도 사람도 실체가 없는 모두 공(空)임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텅빈 원상만 그려져 있습니다.</p> <p>■ 반본환원(返本還源) 강은 잔잔히 흐르고 꽃은 붉게 피어 있는 산수풍경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으로 이는 우주를 아무런 번뇌 없이 참된 경지로서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p> <p>■ 입전수수(入廬垂手) 지팡이에 도포를 두른 행각승의 모습이나 목동이 포대화상(布袋和尚)과 마주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육도중생의 골목에 들어가 손을 드리운다는 뜻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아감을 뜻합니다.</p> <p>이렇게 벽화로서 글을 잘 모르던 사람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표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응전 오른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p>

15/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0. 사찰 식물	· 석산
<p>꽃무릇</p> 	<p>여기 보이는 이 식물은 바로 꽃무릇이라고 하는 꽃입니다.</p> <p>■ 꽃무릇</p> <p>수선화와 식물로 보통 우리에게 석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이 서식하는 다년초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꽃과 잎이 따로 나기 때문에 9~10월에 오시면 빨간 꽃을 보실 수 있고 평소에는 잎만 볼 수 있습니다.</p> <p>그래서 상사화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사화는 6~8월에 개화하여 개화시기도 다를 뿐 아니라 꽃의 색깔도 석산은 붉은색이며 상사화는 연한 보라색입니다.</p> <p>석산은 잎이 없이 꽃만 피는 것이 평생 혼자인 스님과 비슷하다고 하여 절에 심었다 하기도 하나 다른 쓰임새도 아주 많은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낸 즙을 물감에 풀어 탕화를 그리기도 하고 전분을 채취하여 종이를 서로 붙이거나 책을 엮는 풀로 이용하였는데, 살균력이 있어서 이 풀을 사용한 한지는 수천 년이 지나도 썩이 슬지 않아 불경을 인쇄 하거나 책을 만드는 사찰에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또 불교가 처음 시작된 인도에서는 지상의 마지막 잎까지 말라 없어진 곳에서 화려한 영광의 꽃을 피운다하여 피안화라고도 하며, 묘지 근처에 많이 있기도 하여 지옥의 꽃, 죽은 이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또 사찰에 석산이 많은 이유는 출가한 스님을 연모하다 상사병에 걸려죽은 여인이 꽃으로 피어났기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습니다.</p> <p>p946 「한국식물도감」 교학사/이영노</p>

16/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0. 사찰 식물	· 배롱나무

<p>배롱나무</p> 	<p>석산 오른쪽으로 계단 옆을 보시면 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바로 배롱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p> <p>■ 배롱나무</p> <p>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지는 키 큰나무로 7~9월에 꽃이 피며 10월에 열매가 익는데, 꽃이 백일동안 간다고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며, 붉은 수피 때문에 나무 백일홍 또는 자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p> <p>이밖에 원숭이가 떨어지는 나무라고도 하여 백양수로도 불려지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나무의 껍질을 한번 보세요~ 다른 나무와 달리 아주 매끄럽죠?? 이는 나무줄기가 매끈해 사람이 가지를 만지면 나무가 간지럼을 타고, 또한 원숭이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매끄러운 나무라는 것을 뜻합니다.</p> <p>국화과에 속하는 백일홍과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p> <p>이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에 꽃 봉우리가 20개 정도 달려 있어 그것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피고지고를 하다 보니 계속 피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꽃이 백일동안 피는 것처럼 보입니다.</p> <p>오랫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 같이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공부하는 자세를 일깨우라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p> <p>또한 장원급제시 관모끝에 길다랗게 달린 모자를 쓰는 경우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적이 있으시죠?? 그 모자를 어사화라고 하는데 임금께서 하사하신 어사화의 한 소재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p> <p>p 520 「한국식물도감」 교학사/이영노</p>
--	--

17/25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1. 불탑	· 대원사 다층 석탑(보물 제1112호-1992년)
<p>대원사다층석탑 보물 제1112호</p> 	<p>자장율사가 신라시대에 세웠다는 이 탑은 임진왜란 때 소실 된 것을 정조 8년에 다시 세운 것으로 드물게 남아 있는 조선전기의 석탑양식입니다.</p> <p>탑의 모습은 전체적인 체감비율이 뛰어나고 소박하며, 구성은 2층 기단(基壇) 위에 8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모습으로,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일부만 남아있고, 기단의 위층은 이 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본 떠 새기는 대신 인물상을 두었고, 4면마다 사천왕상(四天王像)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신의 각 지붕돌은 처마가 두껍고 네 귀퉁이에서 약간 들려있으며, 8층 지붕돌에는 금방이라도 고즈넉한 경내를 깨울듯 풍경이 달려 있습니다. 대원사다층석탑은 색상이 붉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이 주변의 계곡의 돌 들이 철분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세월이 가면서 산화되어 색이 붉게 변하는 것입니다.</p> <p>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탑전에서 서광이 비치고 향기가 경내에 가득했다고 하며, 마음이 맑은 사람은 근처 연못에 비친 탑의 그림자로 탑 안의 사리를 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p> <p>이 탑은 1988년 8월 문화재보호청에서 보수작업 중 58과의 진신사리가 나왔으며, 기록에는 1784년 옥인선사가 사리 72과를 얻어 기단을 정돈하고 석탑의 3층, 5층, 7층의 홀 수 층에 봉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 1992년 1월 15일 보물 1112호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p> <p>대원사다층석탑의 층수는 8층의 짝수 구조이기 때문에 8층과 9층 사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즉, 불교에서는 짝수의 층수를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석탑의 명칭은 대원사다층석탑이라는 명칭으로 보물이 되었습니다.</p> <p>■ 불교의 탑</p> <p>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하여 세운 건조물을 가리키는데, 탑 속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늘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처님의 법(진리, 불경)을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대표적인 예로 이를 법신사리라고 합니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1. 불탑	· 대원사 다층 석탑(보물 제1112호-1992년)
--------	------------------------------

<p>대원사다층석탑 보물 제1112호</p> 	<p>■ 부처님의 사리</p> <p>부처님의 사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8곡 4두(8가마 4말)가 나왔다고는 하나 정확한 양은 계산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도의 마우리아왕조의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사리탑 8개를 발굴하여 8만 4천개의 불탑을 세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p> <p>■ 사리의 종류</p> <p>사리의 종류 사리에는 크게 전신사리(全身舍利)와 쇠신사리(碎身舍利)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전신사리 중에서 다시 법신(法身) 사리와 색신(色身) 사리로 분류한다.</p>
--	---

<p>사리전</p> 	<p>또한, 석탑의 정면에 있는 전각이 바로 사리전입니다. 사리전은 대원사다층석탑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전각으로 사리전이라고 하며, 1955년 비구니 법일 스님께서 대원사를 중창 하실 때에 가장 먼저 지은 전각이기도 합니다. 당시 폐허였던 대원사에 석탑만이 남아 있었기에 부처님의 일부인 진신사리석탑을 모시는 사리전을 제일 먼저 중창하게 되었습니다.</p> <p>사리전은 평소 스님이 공부하시는 선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며, 처음 중창 당시에는 일반 기와집 같은 구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p> <p>여러분 아까 성철스님이 대원사와 인연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성철스님의 생가가 바로 산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이 스님이 되시기 전 바로 이 곳 대원사에 수행을 하셨는데, 평소 몸이 좋지 못했던 성철스님은 1935년경 영가의 『신심명증도가』를 읽고 지리산으로 수양을 오시게 되었고, 이 곳 대원사에서 약 43일간 수행을 하시고,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p> <p>석탑과 사리전 정면에서 보이는 능선에 좌선대에서 수행을 하셨으며, 스님의 따님이신 불필스님께서도 이 곳 지리산 대원사에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맹세이골이 기억 나시나요?맹세이골은 맹수. 즉, 호랑이가 살았던 골짜기입니다. 이렇듯 이 곳은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에 성철 스님도 처음엔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념을 떨쳐 내고 큰 스님으로 거듭나셨습니다.</p>
--	---

19/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2. 원통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
 <p>원통보전</p>	<p>1967년에 산신각과 함께 지어진 이 전각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법당이기 에 관음전(觀音殿)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스러운 음성 이나 바람을 관찰하여 그들을 구해내는 자비로운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일러 대비성자(大悲聖者), 구제대비자(求世大悲者)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통대사란 말도 있는데 이는 관세음보살의 능력이 두로 못 미치는 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통전은 이 관세음보살의 원통대사로서 의 능력을 강조한 명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p> <p>왼손에는 연꽃을 오른손에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는 자비로운 현세의 구세 자입니다. 연꽃의 봉우리는 중생들 각자가 갖춘 불성을 나타내고 감로수병 은 번뇌를 소제하여 청량을 얻게 합니다. 건물은 특이하게 정사각의 팔작 지붕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p> <p>■ 관세음보살</p> <p>관세음보살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고통을 겪는 인간의 ‘소리를 보는 觀音’ 구세주 보살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미 열반에 들었고 메시아인 미륵의 등장은 요원(까마득함, 멀)하며,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왕생은 고통스런 현실 의 구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세주로 관세음보살이 등장 한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를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관세음보살을 정성껏 부르면 물, 불, 바람 등으로 인한 7년의 재앙을 면하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음 신앙이 유행하였습니다.</p> <p>관세음보살님은 자신을 불러 주는 중생에게 중생의 됴됨이에 따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의 고통을 덜어 주신다고 합니다.</p> <p>대원사 관세음보살님 뒤쪽의 후불탱화 속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모습 중 여성 보살상이신 “백의관음보살” 상입니다. 백의관음보살은 아이의 출산과 아이의 건강을 보살피 주신다고 합니다.</p> <p>■ 나무 관세음보살 : 나무(南無:namas,namo)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 다. 귀의한다. 받친다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 미타불이란 말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부처님께 의지하다 이런 뜻으로 사 용합니다.</p>

20/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3. 산신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신각과 마고할미
산신각	<p>원통보전 뒤편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위에 보이는 전각이 바로 산왕각입니다. 흔히 산신각으로 알려져 있는 전각입니다. 이 곳 대원사 산신각은 산 중에서도 왕(王), 천왕봉을 품고 있는 지리산의 산신을 모시기에 산왕각으로 격을 높여 지어진 것입니다.</p> <p>■ 산신각</p> <p>산신을 모시는 전각이다. 사찰에 따라서는 산령각(山靈閣)이라고도 부른다. 또 삼성각(三聖閣)을 두어 칠성신·독성(獨星)과 함께 모시는 경우도 흔하다. 본래 산신은 도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 많이 믿던 토착신이다. 특히 산지가 70%나 되는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산신신앙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 산신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호법신중(護法神衆)의 하나로 자리잡았다.</p> <p>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므로 산신도 비교적 일찍 불교에 수용되었을 것을 여겨지나, 산신각이 세워진 것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이다. 대개 전각의 뒤쪽에 세우며, 크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 보통이다. 산신각 내에는 산신을 그린 탕화를 모시는데 대개 흰수염, 대머리, 긴눈썹이 휘날리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손에는 하얀 깃털부채나 파초선·불로초 등을 들고 있고 주로 봉래산·영주산·방장산 등의 삼신산을 배경으로 한다. 이 곳 대원사의 산신각은 지리산의 산신이신 “마고할미”를 모셔서 여성상을 하고 있다. 보통 오른쪽에 황색의 호랑이(황호)를 끼고 있는 반면 여성스러운 백호를 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 <p>■ 마고할미</p> <p>지리산의 산신으로서 천왕할매 라고도 불리우며, 삼국시대의 조상들은 크고 높은 영산의 정상마다 천심과 인심을 잇는 여신을 좌정시키고 이를 섬겼었다. 삼신산중 하나인 지리산의 여신은 성모 또는 보다 높은 천왕할머니로 불러내리면서 많은 조화를 부렸다. 한국무속의 기원 설화에 보면 성모는 딸 여덟을 낳아 무술을 가르쳐 팔도에 퍼트린 한국 토속신앙의 조상이기도 하다.</p>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	---------

14. 명부전	· 지장보살과 지옥의 심판관 시왕(十王)
<div data-bbox="215 667 316 705" data-label="Section-Header"><h3>명부전</h3></div>    	<p>명부란 염마왕이 다스리는 유명계 또는 명토(冥土)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하는 전각입니다.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곳이므로 지장전이라고도 하며, 지옥의 심판관 시왕을 모신 곳이므로 시왕전[十王殿],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전각이므로 쌍세전(雙世殿)이라고도 합니다.</p> <p>■ 지장보살</p> <p>육도의 윤회 속에 끝없이 방황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나아가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인도하여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는 보살로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함이 지장보살의 서원입니다. 지장보살님의 특징은 삭발한 민머리를 하고 계시면서 여의주를 들고 있거나 석장 또는 고리가 6개 달린 육환장을 들고 있다.</p> <p>■ 시왕/십왕</p> <p>사자에 대한 죄의 경중을 다루는 10명의 왕을 이야기 합니다.</p> <p>사람이 죽으면 저승의 열두 대문을 들어서면서 49일(7일에 한번씩 7회)과 백일, 1주년, 3주년에 걸쳐 모두 10명의 왕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중 5번째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는 왕이 염라대왕이며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어서 그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거울에 비추어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빌며,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p> <p>■ 염라대왕의 명퇴 위기</p> <p>최근에 벌어진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옥황상제는 염라대왕에게 명퇴를 권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억울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먹어 눈이 좀 침침하긴 했지만 사실 한국인들은 성형수술과 연예인 따라잡기를 통해 모두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천당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천당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p> <p>게다가 지옥으로 보낸 한국인들은 찜질방으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지옥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옥에서 들려오는 염라대왕을 좌절케 하는 이한마디. “애들아 유행불 나온다!”</p>

22/25	신청인 : (서명)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5. 지리산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프로그램 소개 및 지리산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과 지리산 국립공원	<p>이것으로 지리산의 품속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는 대원사 역사·문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문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탐방해설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p> <p>여러분이 참가하고 계신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이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를 눈으로 보고 스치는데 그치지 않고 모두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립공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그리고 자연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곳일까요?</p> <p>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문화, 역사, 경관자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p> <p>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지정을 시작하여 지금은 20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오신 이 곳은 지리산국립공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영호남 내륙 지역에 자리 잡아 경남, 전남, 전북의 3개도에 걸쳐있고, 둘레는 320km정도로 약 800리로 우리나라 산악형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p> <p>또한 지리산은 1,915m 높이의 천왕봉, 제석봉(1,806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 등 1,000m이상 봉우리만 해도 30여개가 있고 칠선계곡, 백무동계곡, 중산리계곡, 대원사계곡, 피아골계곡 등 아름다운 많은 계곡들이 있습니다.</p>

23/25	신청인 :	(서명)
-------	-------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16.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과 답변 · 마지막 인사
마무리	<p>저와 함께한 시간이 국립공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역사·문화를 조금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 합니다.</p> <p>잠시 다른 궁금한 점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p> <p>(질문 및 대답 그리고 탐방객의 의견청취)</p> <p>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과 저희에게 힘을 주는 의견들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국립공원관리공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p> <p>지리산과 함께한 시간이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가십시오.</p> <p>감사합니다.</p>

해설자용 참고자료

프로그램명	대원사 역사·문화해설
-------	-------------

구분	보충자료 정리
참고문헌	<p>「불교건축」 김봉열 - 솔</p> <p>「불교회화」 유마리, 김승희 - 솔</p> <p>「탑」 강우방, 신용철 - 솔</p> <p>「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 허균 - 돌베개</p> <p>「엄마따라 절에 가기」 김광호 - 혜성출판사</p> <p>「전통사찰 총서」 사찰문화 연구원 - 사찰문화 연구원</p> <p>「남부지방 사찰의 식생 및 경관변천에 관한 연구」 조남훈 - 성균관대학교</p> <p>「우리나무백과사전」 서민환, 이유미 - 현암사</p> <p>「우리 불교 문화유산 읽기」 백유선 - 두리미디어</p> <p>「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 권영환 - 전원 문학사</p> <p>「불교의 이해」 금강대 불교문화 연구소 - 무우수</p> <p>「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 권영환 - 전원 문학사</p> <p>「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 보리 / 임경빈 p132</p> <p>「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무백과사전」 현암사 / 서민환,이유미 p30</p> <p>「세밀화로 그린 나무도감」 보리 / 임경빈 p242~243</p> <p>「우리풀 백과사전」 현암사/이유미 p55</p>